

가정예배 안내서

12

1995

충현의 만나

사무엘상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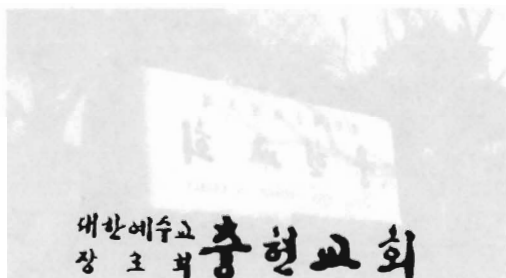
12

1995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사무엘상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도록
2.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3.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5.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6.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7.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8.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 목사를 속히 허락하소서.



충현의 만나

1995년 12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사무엘상 서론

타락한 제사장들과 사사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왕을 원하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스라엘도 다른 주변 국가들처럼 조직된 국가 체제를 갖추어주 시기를 간구했다. 하나님은 각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기보다 인간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그들을 책망하셨으나 그들의 요구대로 일단 왕정을 허락하셨다(8:1-22). 그러나 왕을 세우는 것으로 이스라엘 내부에 산적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번에는 왕이 그들의 짐이 되었다. 인간이 타락한 이상 그 인간이 운영하는 그 어떤 제도도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각 시대와 각 사회의 성도들은 체제와 그 이념을 절대화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일하게 절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체제와 그 체제의 집행을 인도해야 할 것이다(시 119:130).

한편 왕정 체제로 돌입하면서 마지막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의 등장과 그의 죽음(2:1-3:21),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립으로 이스라엘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전 민족의 신앙 생활에 외적 형식상으로는 큰 변화가 오게 되었다. 그러나 형식없는 내용은 방종이며, 내용없는 형식은 위선이다. 현대의 성도들도 각기 성경의 원칙에 근거한 형식으로 자신의 신앙 생활을 영위해나가야 한다. '개혁교회(구교로부터 개혁을 주장하고 나온 기독교)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성경의 지지를 받는 표어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끝없이 우리 자신을 개혁하여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한다.

1

(금) 기도의 힘

찬송 / 484장 본문 / 삼상 12:1-25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12:20)

본문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경고하였습니다(1-18절).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19-25절). 사무엘은 자신의 책망과 경고를 듣고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은 백성들에게 비록 왕정 체제를 요구했던 저들의 동기와 자세는 나빴지만 왕정 체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교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없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자기 과신이기 때문입니다(스 4:6). 만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롬 11:36).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자리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기도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기도하는 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의 권리를 강탈하는 죄에서 벗어나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13:13)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함으로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행동하는 자는 망령되이 행합니다. 즉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도덕적 능력이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능력이 부족하여 규모없이 어리석게 행동을 합니다.

본문의 사울 왕도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무엘은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사울의 행위는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 결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월권행위를 한 사람은 자신의 지위에서 쫓겨나는 치욕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결코 변명해서는 안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보다 더욱 바람직한 우리의 자세는 나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 기도 /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건강을 더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주일) 요나단의 신앙의 승리

찬송 / 401장 본문 / 삼상 14:1-15

『여호와와 그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14:6)

본문은 사울이 거듭 실수하게 된 계기가 되는 부분으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용기로 지극히 불리했던 전세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그의 수종자와 함께 블레셋의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이스라엘 진영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이러한 행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요나단과 그 수종자는 큰 전과를 거두고 블레셋 군대를 혼란에 빠뜨림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매우 신앙적이며 담대한 용기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버지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사울은 위급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불신앙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하여 출전을 주저하고 있었지만 요나단은 신앙으로 불리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랐던 용기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고백은 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신앙과 용기야말로 참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실 구원은 결코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혹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와 같은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당신을 신뢰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성도들의 취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즉 아무리 강력한 대적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역경을 이기게 하소서. 충현의 성도들이 한 달 남은 금년을 잘 마무리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14:18)

요나단의 활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힘입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격파하고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활약으로 인해 블레셋 진영이 혼란케 된 것을 알고 백성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에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블레셋 군대에 편성되었던 히브리 사람들과 진영을 이탈했던 백성들이 다시 사울과 합함으로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하심의 결과였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지혜나 능력 등을 자랑하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려는 형식적인 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울은 전쟁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다가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하다고 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것을 내팽개치고 돌변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그의 경솔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행하다가 어려운 일이 풀리는 것 같으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나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도 / 충현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바르고 선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화) 왕명을 범한 요나단

찬송 / 204장 본문 / 삼상 14:36-52

『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 (14:45)

본문은 단식 명령을 범한 요나단을 사울 왕이 처형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백성의 마음을 통하여 막으신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분명히 왕명을 범한 자로서 마땅히 옹분의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처형을 막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부지 중에 범한 죄는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모세 율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4에 보면 무심 중에 자신이 맹세한 것을 범하였을 때에는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림으로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왕명을 부지 중에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를 뉘우친다면 마땅히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통치자의 사악한 행위는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을 처형하려 했던 것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맹세로 단식령을 선포할 즈음에는 이미 요나단에 의해 블레셋이 거의 격퇴된 뒤였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어서 적을 추격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금식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권세자들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이 하나님께 대해 불의를 행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굴종하거나 야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의에 대한 비판과 개혁을 서슴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맡기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 기도 /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시사 목양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15:11)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사무엘은 근심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란 뜨거운 열기에 의해 쇠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마음속에서 치솟은 분노로 말미암아 목이 몹시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근심이 사무엘에게 생겼습니까? 그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좇지 않고 그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을 향하여 사무엘선지자는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와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질책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잘못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핑계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근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남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밤을 새워가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의 절실함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온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인의 범한 잘못 때문에 밤을 새워 부르짖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생명의 귀중함을 느끼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악에 빠진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 기도 / 우리 이웃의 잘못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모든 당회원들이 더욱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목) 사울의 경배

찬송 / 399장 본문 / 삼상 15:24-35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10:28)

사울은 온 국민의 추앙을 받으며 임금이 되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도 대승리를 거두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전승기인 이때에 사울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사무엘은 전쟁에서 수고하고 승리한 사울 왕을 만나 그의 노고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하한 것이 아니라 왕의 실책을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고 최후의 선언을 하였습니다.

왜 사울은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울이 실패한 원인은 능력이 부족하여 궁지로 내몰리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백성들의 눈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소유라면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멸하라고 하셨지만 만약 그렇게 할 경우 목숨을 걸고 사울을 따른 용감한 병사들에게 돌아갈 전리품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 경우 그 군인들의 원망을 감당하기가 사울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좋은 소와 양떼를 가지고 아마 다른 군인들이 전리품 챙기는 것도 허용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하는 사무엘에게 함께 돌아가기를 간청하는데 그 이유도 진정한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만약 사무엘과 갈라설 경우 백성의 신망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드리는 제사행위를 통하여 왕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 기도 / 사람을 보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소서. 교회 직원들이 감사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16:7)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첫째로부터 일곱째까지 보는 동안 그들의 준수한 외모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곱 아들을 다 보내고 들에서 일하던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사이에 있는 차이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힘 즉, 지위나 재산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진실함과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사무엘에게 지시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우리는 사람의 진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좋고 믿음도 좋은데 너무 가진 게 없어서,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키가 너무 작아서라고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게있게 평가할 항목은 진실한 믿음에 바탕을 둔 인격입니다. 둘째 우리는 속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남이 알아서는 안될 비밀을 하나이상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하루 생활하면서도 이것까지는 사람들이 모를꺼야 하며 남의 눈을 피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들에서 혼자 양을 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인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우리도 사람을 중심에 따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충성된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

(토) 하나님의 사람

찬송 / 350장 본문 / 삼상 16:14-23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16:23)

본문은 악신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울 왕을 위하여 수금을 타면서 돕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책임져주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위가 나아지자 교만해졌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서 악신에게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그 악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오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왕궁생활을 미리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수금을 타면 악신이 물러갔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말하며, 둘째는 다윗이 그만큼 순수하고 깨끗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도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늘 깨끗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일만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늘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찬양대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부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⁷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17:26)

본문은 다윗이 형들을 면회하러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실 때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욕이나 무시를 당해서는 안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분노는 자신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표현하는 감정적인 분노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갖는 정의로운 감정입니다. 다윗은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들을 듣곤 합니다. 간접적으로는 사람의 생각이나 과학의 발전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시당할 때에 우리 마음은 어떠한지요? 다윗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이들을 보시고 의로운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로운 분노를 발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 (17:47)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한 싸움에서 승리한 기록입니다.

다윗은 군복과 투구와 갑옷 그리고 칼을 내버리고 평소에 목동으로 양을 치던 막대기와 돌을 무기로 하여 골리앗을 상대하였습니다. 골리앗은 어린 다윗을 업신여기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먹이로 주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외치면서 담대히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각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전쟁은 지금도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과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상대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입고 늘 기도로 깨어 있으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성도, 깨어 있는 교회는 우리나라를 전쟁의 위협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굳게 믿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의 영적 싸움과 이 세상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지혜를 주소서. 각 교구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18:11)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가 되어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반면,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상대방이 잘되도록 도와주려 합니다. 즉 사랑은 상대방을 섬기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왕자로서 갖고 있던 물건들을 다윗에게 기꺼이 줄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은 또한 백성 중에서도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모든 백성이 그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달랐습니다. 악신이 사울 왕에게 임하자 질투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던졌습니다. 질투는 악한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질투는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마음과 질투의 마음은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은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참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미워하는 질투가 자리잡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투는 참지 못하고 거칠며 미움의 감정으로 가득차 상대방을 해치려는 행동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천국에는 사랑이 있고, 지옥에는 질투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천국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천국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 기도 / 하나님, 우리 가정에 늘 사랑이 풍성하여 서로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가득차게 하여주소서.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이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18:29)

본문은 사울 왕이 다윗을 해치우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백성들로부터 다윗이 인정받게 됨을 인해 자신의 왕의 자리가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해 자신을 위해 충성을 다하던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보잘것 없는 일개 목동의 자리에서 한 나라의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며 기쁨일 것이나 다윗의 경우에는 이것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사울은 모두 세 번이나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 음모를 계획하였습니다(17, 21, 25절). 그러나 다윗은 그 때마다 그 위기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놀라운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마로 간택되었다는 사실에 자만하지 아니하고 더욱 겸손하게 처신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두 사람의 모습은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자신의 부하를 죽이기 위해 비겁한 음모를 꾸미고 이를 이루고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위기가 닥쳐온다고 하여도 오히려 담대하고 더욱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심지어는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에게서조차도 그 이름이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신앙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의 삶이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장애인들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19:18)

본문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살의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무려 네 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아들이며 다윗의 절친한 친구인 '요나단'을 통하여(1-7절), 혹은 다윗 자신의 용기와 민첩함으로(8-10절), 또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내인 '미갈'의 지혜로(11-17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 사무엘의 도움으로 이 위기의 순간들을 모면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의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사울의 꾀박을 견디다 못해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 간 것은 우리들에게 귀중한 신앙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간 사실은 다윗이 이 위기의 순간을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권위의 탁월함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이들을 해치려고 라마 나뭇에까지 찾아왔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확증을 더하여 주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시련의 와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욱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므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20:17)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일곱 번의 위기 가운데 마지막 일곱번째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번째의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은 한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랑하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행동은 친구를 사귄데 있어서 진실한 우정을 가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나단은 자신의 위치로 인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세자이었으나 자신의 부하인 다윗과 함께 진실한 우정을 나누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에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의 위기를 도와주려고 하면서도 오히려 겸손히 다윗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그를 축원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것을 기원하였으며, 장차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잘 대해 줄 것을 부탁하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멸하실 것을 소원하였습니다. 또한 요나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 쓰시고자 작정하신 것을 알고 있는 요나단은, 그것이 비록 자신의 왕자로서의 기득권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진정한 우정을 가지면서도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우정을 나누게 하소서. 남복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송 / 470장 본문 / 삼상 20:24-42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20:42)

본문에서 사울 왕은 어찌하든지 다윗을 죽여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계속적으로 영화를 누리려고 애를 쓰는데 반하여, 그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친구인 다윗을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는 자신의 악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그 분노를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심한 저주로 퍼붓고 심지어는 요나단을 죽이려는 것으로 해소해 보려고 하였습니다(30-33절). 그러나 요나단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자신의 아버지요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내린 엄명이었지만, 이를 단호히 배격하고 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겸손히 순복하였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위하여 선택한 행동을 취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나단의 가문이 수치를 벗게 되고 다윗으로부터 커다란 도움을 받게 되는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참으로 아름다웠던 우정의 시간들을 아쉬워하며 이별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 두 젊은이들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은 정처없는 유랑의 길을 나서야 했고, 요나단은 폭군인 아버지 사울 왕에게로 돌아가야만 하였습니다. 이 때 이들은 영혼 중심에서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평안의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41, 42절). 이와같이 우리들도 아무리 어렵고 심각한 슬픔의 순간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평안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 기도 / 우리의 심령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게 하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키시고 모든 사역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 (21:6)

다윗은 요나단을 떠나 긴급히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는 감람산 북쪽의 뚝으로 도피하였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모르는 아히멜렉은 다윗이 부하들도 없이 홀로 행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다윗은 왕의 명령이 일을 비밀리에 하라고 해서 자기의 부하들을 다른 곳에 은밀히 배치해 놓았다고 대답하고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는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는 진설병 밖에는 없었으므로, 다윗에게 부하들이 여지들을 가까이 하지만 없었다면 그 떡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들은 성결하다고 대답하였으며, 아히멜렉은 결국 성막에서 물려낸 거룩한 떡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떡을 물려내는 날은 안식일이며, 따라서 이 날은 안식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 떡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었는데, 왜 제사장은 이 떡을 다윗에게 주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비벼서 먹는 것을 보고, 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자, 다윗이 성전에서 안식일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떡은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다윗과 같이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우리가 주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가 사역하는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빛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 』(22:2)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후에, 그는 아 들람 굴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그 곳으로 왔다는 소문을 듣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빛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으며,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수가 약 400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모두 영접하였으며 다윗의 왕국은 바로 이러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초를 세웠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윗과 같이 이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촌에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천국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환난 당한 자들과, 빛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찾아왔으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하나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고 인도하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척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되었으며,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소외된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닦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 오는 자들은 어떠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든지 만족을 얻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 기도 / 지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주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가 추진중인 종합선교관 건립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니라.”(23:14)

사울은 도엑의 거짓 고발을 듣고, 다윗을 영접했다는 죄목을 씌워서 에봇 입을 제사장 85인과, 그 성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와 그리고 모든 가족까지 죽였습니다. 그 때에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 다윗에게 도망하였습니다. 사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였으며, 다윗은 심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으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정복하게 되자,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성을 기습하여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성 거민을 구원하고 가축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자, 사울은 다윗이 성문 안에 갇혀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내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도망할 때에 가지고 온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하여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반드시 다윗을 치기 위하여 올 것이며, 그일라 거민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일라 거민들은 배은망덕하게도 생명을 걸고 자신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때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항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분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가 추진중인 성지연구소 건립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나단이 ……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23:16)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방해가 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황무지로 도망다닐 때도 거기에는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든지 그의 행적을 일러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요나단처럼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참 친구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했지만, 그는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줄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단을 가리켜 다윗의 일생에 큰 힘이 되었던 참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 친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입니다(16). 다윗이 가장 힘들어 할 때, 그리고 다윗이 가장 외로움 속에서 지쳐있을 때,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해준 것 그것이 바로 참 친구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자신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17). 그렇습니다. 세상은 본래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지만 참 친구는 자신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의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는 참 친구가 되기를 바라며, 한편으로는 평생에 힘이되는 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우리에게도 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소서. 안석렬 선교사(수리남)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24:19)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만 손해를 입고 피해를 당하는 것 같아도 늘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굴을 생명의 굴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철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심각한 지경에 까지 이르도록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서 위기를 완전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자세로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베고도 마음 아프게 여겼습니다.

사울을 살려준 다윗의 행동은 우리들이 원수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로 보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아는 일입니다(12). 둘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판결하시는 재판장이심을 아는 일입니다(15).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같은 신앙으로 원수들을 선대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원수들의 입을 통해 의롭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17). 사람들은 원수를 만나면 절대로 그를 평안히 가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 기도 / 공평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김은테 선교사(홍콩)가 사역하는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25:21)

다윗은 악독한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의 심한 모욕감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분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다윗이 동굴에서 사울을 만나던 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으나 그때와는 달리 나발에게는 복수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성품을 좀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면서도 결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행동은 조금도 나무랄 데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고 생각한 순간 다윗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심판의 칼을 들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나발과 그의 가족들을 진멸하겠다는 무서운 맹세까지 한 것입니다(21,22).

이런 과정에서 본문 다음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지혜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다윗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것은 악하고 무모한 짓이라는 것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26).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사건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풀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건을 해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고 마음대로 일을 판단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판단과 생각에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 것인지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며 사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기도 / 오늘도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소원합니다. 김영대 선교사(수단)의 사역을 통해 모슬렘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25:32)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잔인하게 분노하여 피를 흘린 자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미련한 나발을 대신하여 그의 아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윗의 복수를 막으셨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게 되자 땅에 엎드려 사죄하였습니다. 남편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잘못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은 비록 사울에게 쫓겨 다니는 처지지만 그를 존경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피의 복수대신 참음으로 다윗의 흘릴 피를 막아주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잘 듣고 수용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다윗은 피흘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시다. 남편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두둔하지 않는 지혜, 남편의 잘못을 대신 사죄하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지혜, 범죄를 막게 돕는 지혜, 남의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이는 지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줄 믿는 지혜를 구하여 지혜로운 일꾼들이 됩시다.

▶ 기도 /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오니 지혜를 주소서.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의료선교사역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26:9)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로 맡겨진 지경을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세우시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뜻을 위해 바꾸십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임의로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잘못이 있고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리지 말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처지였습니다. 사울이 오히려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잠자고 있는 곳에 다윗과 그의 장군 아비새가 와보고는 그냥 갔습니다. 죽이라는 아비새의 성화를 잠재우고 다윗은 사울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갔습니다.

사울은 드디어 자신의 범죄를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24절에서 “오늘 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라고 하나님께 모 든 것을 의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합시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께 의탁합시다.

▶ 기도 /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2:14)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 중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인간 구원은 속죄로써만 가능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느니라”(히 9:22) 속죄의 조건은 대속입니다. 즉 대신해서 누군가 우리 받을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신 형벌 받으려면 자신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대속주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진 성탄의 소식을 들을 때 목자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들리는 천군천사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쁨과 찬송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평화’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서 오신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또 성탄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평화입니다. 평화는 죄 용서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탄으로 죄 용서의 큰일이 시작되었으므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성도의 평화입니다. 하나님 뜻의 성취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죄 용서의 시작이므로 성도에게 평화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속죄의 은총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 기도 /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때를 따라 주님의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하게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27:1)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게 됩니다. 나 중심으로 살 때 낙심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블레셋으로 피신하여 이방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마음의 생각이 다윗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낙심하고 절망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한 연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체험적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씀중심의 신앙입니다. 셋째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행동과 사고의 현주소를 항상 '하나님 앞에' 두며 모든 형태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기도 /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가 전개하는 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28:6)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우리들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대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어찌해야 할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침묵하셨습니까? 첫째, 죄악 때문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야 됴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또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죄악이 사울에게 가득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둘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셋째, 형식적인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미 마음 속에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생사가 달려있는 전쟁을 앞에 두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서 기도하였으므로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생활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응답받는 부르짖음이 되게를 간구합니다.

▶ 기도 /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응답 받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섬기는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29:5)

위기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동족과 전쟁을 치러야 할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왜 다윗이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거짓말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이방 나라 가드로 도망하여 살면서 그 나라 왕 아기스에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거침돌이 되었던 이방인들을 침노하고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는 유다 민족을 침노하였노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기스의 신임을 얻은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위기상황입니까?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여 다윗을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참전하였다가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될 것을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기스 왕이 변호를 하여도 방백들은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의심을 하게 하여 동족간의 전쟁에서 빠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 기도 /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소서. 모든 공무원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30:6)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패배와 좌절, 그리고 도약과 승리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패배에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뜻밖에 당한 패배와 좌절 가운데서 다시 승리를 쟁취하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의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와 3일후에 시글락에 도착하였습니다(1절). 그런데 아말렉이 시글락에 쳐들어와 마을을 불사르고 모든 가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서 과연 아말렉을 추격하여 그들의 가족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어 보았습니다(8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승리를 향한 지름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실패하며 선한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여 아말렉의 처소를 습격하게 되었습니다(17절). 이것은 배후에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다윗이 비록 참담한 패배와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그가 주님을 의뢰하고 힘을 얻자,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길을 즉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알아 용기를 얻게 하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죄악된 요소를 제거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31:9)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불순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이라는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국가와 종교에 불행한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첫째로, 원수들로 기뻐하게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길보아산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승리감과 기쁨이 가득차게 되었습니다(8, 9절). 이와같이 우리 신앙인의 실패는 곧 우리의 대적 사단과 그의 사주를 받은 악한 자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둘째로, 원수들의 신이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인들은 사울의 갑옷과 그의 벤 머리를 자기들의 신당에 놓음으로써 그들의 신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9절).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여호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슬퍼하게 하였습니다. 본문에는 유다의 성읍이었던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슬퍼하며 7일을 금식하였다고 하였습니다(11-13절). 신앙인의 패배는 그 사람의 슬픔과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신앙인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을 줍니다. 우리의 실패는 나 혼자만의 실패가 아닌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한시라도 믿음의 삶에서 이탈하여 우리의 대적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며, 믿음의 형제들을 낙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안에서 승리의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 기도 / 우리가 교회의 지체인 것을 깨달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라도 패배하지 않게 하소서. 돕고 있는 모든 개척 교회와 미자립 교회가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4:32)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과거에의 회상을 요청합니다. 우리 역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같이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회상해보아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3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곧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요 또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가장 먼저 회상해 보아야 할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입니다. 둘째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 내셨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37절) 하나님의 섭리를 회고해 보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가정은 지난 일 년 동안 사고의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주신 것을 회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40절).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졌으며, 종국적으로 가나안이란 최대의 축복이 완전하게 주어질 것임을 확신시킵니다.

실로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볼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명철, 건강, 재물 등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궁극적으로 천국을 상속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붙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52 과

주 안에서 계속 기뻐하는 비결

말 씀 : 빌립보서 3:1-3

찬 송 : 82장

요 점 :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사라지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찾아봅시다.

서 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49회에 걸쳐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감금된 상태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오는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본 론

첫째, 주 안에 있을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이지 주 밖에서의 기쁨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라는 말씀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나의 인생길을 운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그들을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면서 기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밖에서 기뻐한다거나 혹은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위태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들은 세 가지를 삼가야 합니다는 것입니다(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야 합니다. '개들'이란 물질을 탐하는 자를 말합니다. '행악하는 자'란 악을 저지르는 자를 말합니다. '손할례당'이란 문자 그대로 몸에 할례를 행하여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삼가야 합니다. 멀리해야 하고 단절해야 합니다. 같이 인생길을,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것처럼 물질을 그리워하고, 악을 끊지 못하고 끌려가고, 구약의 율법을 복음안에서와 십자가 밑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붙들려 문자 그대로 고수해야 한다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 기쁨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기쁨은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서 차고 넘칠 것입니다.

셋째,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들은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3절).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그 무엇도 지식도 경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님만 내세우고 앞세우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참으로 사고도 많고 슬픔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생을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1. 우리 성도들은 ()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2. 우리 성도들이 삼가해야 할 것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
() () ()
3. 우리는 () 만을 자랑해야 하고, 나의 ()
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4.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53 과

뜻대를 향하여

말 씀 : 빌립보서 3:12-14

찬 송 : 401장

요 점 :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경주를 잘 하려면 오로지 앞을 향하여 부단히 달려가야 합니다. 뒤를 바라보지 말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경주자가 되고자 합니다.

서 론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도로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론

첫째,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12절).

나는 다 이루었다든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이제 끝인 지점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진을 할리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미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13절).

경주자에게 있어서 이미 한 일은 뒤에 있는 일입니다. 이미 한 일을 생각하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과거에 붙들려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뒤를 바라보는 사람이 경주를 잘할 리가 없습니다.

셋째, 꺾대를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14절).

꺾대가 없다면 그 경주는 하나마나일 것입니다. 꺾대가 없이 어찌 잘 갈 수가 있습니까? 목표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꺾대는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사명을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을 위해 중단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넷째, 경주하는 자세는 잡을듯이, 쫓아가듯이 해야 합니다(13, 14절).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경주를 하다말다 해서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달란트 맡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하듯 경주해야만 또 두 달란트를 남길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론

우리 모두는 신앙의 경주자로서 자기의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남길 바를 남겨 주님의 칭찬을 들어야겠습니다. 꺾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1. ()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신앙의 경주자의 모습입니다.
2. 경주자의 자세는 () () 해야 합니다.
3.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부르신 부름, 즉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 54 과

하늘나라 시민

말 씀: 빌립보서 3:20-21

찬 송: 543장

요 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서 론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 시민인데 그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본 론

첫째로, 하늘나라 시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인 중거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지로 하늘나라 시민인 우리는 믿음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이미 내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남녀노소 혹은 인종 백인종 황인종을 막론하고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지옥의 백성이 될 수 밖에 없는 나를 하늘나라 시민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너무도 엄청나지 아니합니까?

둘째로, 하늘나라 시민임을 아는 사람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고대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외국으로 출장 간 신랑을 만나고 싶어하듯이 우리 신령한 신부인 성도들은 신랑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인 그대는 과연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애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내가 성도인데 신랑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하는지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표시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우리는 이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이 시민권을 얻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시민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너희만 가지고 있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밖에 있는 저들도 시민권을 얻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안내하는 방식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늘나라 시민권이 없어서 지옥의 불로 들어가는 저들을 우리는 생명줄을 던져서 구원해내야겠습니다.

결 론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시민권자답게 살아갑니다. 그는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며 또한 그 시민권을 선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특징이요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1. 성도들은 ()의 시민입니다.
2. 우리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을 애타게 기다려야 합니다.
3.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열심으로 ()해야 합니다.
4. 나는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5. 나는 얼마나 사람들을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도록 안내했습니까?

제 55 과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자

말씀 : 빌립보서 4:4-7

찬송 : 468장

요점 :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지 살펴봅시다.

서론

세상은 평화를 원하나 여기저기 들리는 소식은 싸움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평화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에게는 그 평화가 넘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여 평강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본론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심령에 무슨 파도가 있든 없든 성도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의 심령에는 하늘의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심령에 평화가 깃들리는 만무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 평강을 누리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둘째, 관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관용의 삶이란 관대하고 용서하는 삶을 말합니다. 관용의 삶을 살아가는 심령에 평화가 자리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관대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사는 심령에는 평화가 아니라 다툼과 투쟁이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관대히 용납한 요셉같이 우리도 관용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없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염려가 있는 한 평화로운 심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염려가 찾아오는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만 염려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와 같이 기도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염려와 기도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염려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감사하면서 기도할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결론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며 살아갈때 하나님의 평화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역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1. 우리는 주님 () () 기뻐해야 합니다.
2.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 ()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3.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때 ()는 물러가게 됩니다.
4.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 56 과

능력있는 삶

말씀 : 빌립보서 4:10-13

찬송 : 455장

요점 : 누구나 다 능력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능력있는 삶은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서론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때로는 아주 물질이 없어 힘든 비천에 처하기도 했고, 때로는 아주 풍족하여 풍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늘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연 그는 능력있는 삶을 살아간 전도자였습니다. 그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도 능력있는 성도가 됩시다.

본론

첫째, 그는 자족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는 특별한 환경에서만 자족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족할 줄을 모릅니다. 언제나 부족하여 찢찢 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족할 줄을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이야말로 능력있는 일꾼인 것입니다.

둘째, 그는 어떠한 형편에도 잘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번씩이나 그는 배웠다고 말합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는 평생동안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배워나갑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운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에 처할 줄도 배웠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배운 능력있는 일꾼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배울 때 능력있는 일꾼이 됩니다.

셋째, 그는 능력있는 예수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 가는 능력있는 일꾼이었습니다.

능력있는 삶이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을 때만 나도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그의 사명 일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나의 사명 일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아는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능력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어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1. 사도 바울은 “내가 () 배웠노니” 라고 했습니다.
2.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암송해봅시다.
3.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MEMO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